

# 수효사 효림원 복지 포교 10년... 10여개 시설 운영

사찰안 복지센터로 유명한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대표이사 무구)이 10월 20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기댈곳 없는 지역 어르신들이 서울 서대문구 수효사 주지 무구 스님을 찾아와 자신들의 노후를 부양받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효림원은 이제 6개의 직영시설과 4개 위탁시설을 가진 노인전문복지법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간 효림원을 다녀간 어르신들이 어렵 잡아도 죽지 수만명은 넘을거라는 것이 무구 스님의 말. 수(修)와 효(孝)를 근본으로 어르신을 섬기겠다는 이념답게 지치지 않고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행해온 노인복지발자취를 더해본다.

데이케어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해 있는 어르신은 총 31명.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가족 부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보호 기능 뿐 아니라 문화참여, 재활서비스, 가족상담지원 등도 이뤄진다. 서대문구 지역내 방문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50여명의 어르신들이 복지센터를 이용중이다.

또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2004년 노인보호센터로 시작

수효사 효림원은 2004년 10월 20일 복지법인 설립 후 이듬해 2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를 시작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잇달아 개원했다. 현재는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교육원, 연꽃간병회를 운영하고 있고 북가좌2동노인복지·데이케어센터와 서대문노인전문요양·데이케어센터도 위탁 운영하는 등 점차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효림원은 사찰 안에 복지센터가 위치한 보기드문 형태다. 총 8층 높이 건물 중 맨 위 층 수효사를 제외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건물 각 층을 사이좋게 나뉘고 있다.

## 2004년 사찰내 복지센터 설립

### 노인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갖춰

### 2013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와 전문적인 케어기술 습득을 통해 차별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 신도자원봉사조직 성장 비결

수효사 효림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사찰 신도들의 자비행이 자리하고 있다. 사찰과 복지센터가 함께 있다보니 신도들이 수시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



수효사 효림원을 설립한 무구 스님(사진 왼쪽)은 어버이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핀다

이다.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등 불교와 복지가 한데 어우러져 도심불교복지도량으로 거듭난 것이다. 때문에 탄탄한 자원봉사 조직과 활발한 활동은 수효사 효림원의 자랑거리다. 막힌 혈을 찾아내 침으로 따주는 '따주기 공덕회' 역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단체다. 60명의 회원들이 군법당으로 봉사활동을 나간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저소득층 어르신 106명에게 진행되는 밑반찬 지원서비스에도 수효사

신도들이 봉사자로 참여한다. 신도들을 복지 전문가로 길러내는 교육도 이루어졌다. 수효사 복지대학에서는 '아름다운 이별여행을 위한 준비교육'을 주제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 교수와 의료진 등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해 호스피스 개념과 죽음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 말기환자의 심리 정서 케어, 불교생사관, 불교생명윤리, 임종의식, 불교상장례 문화, 사별가족관리 등 다양한 교육을 했다. 산하 연꽃간병회에 소속된 100명의 간

병인들 역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받고 동국대 입산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 두 차례 복지부 장관상 받아

하지만 내실있는 곳. 수효사 효림원이 추구하는 바다. 여타 사회복지법인과 비교했을 때 작은 시설일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말자는 것이 운영철칙이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효림·수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A등급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전국에 있는 3천6백여개의 입소시설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상위 10%(342개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구 스님은 "시작 초기만 해도 복지가 쉬운 줄 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담벼들었는데 결국 그게 아니더라"며 "10년이 넘는 지금에서야 복지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 그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했다. 이어 행복경의 말을 인용하며 "복지를 통해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 그리고 때로 가르침을 듣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지역사회 행복나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2001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및 운영자를 육성, 발굴하는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 주요연혁

- 2004 법인 설립
- 2005 효림노인주간/단기보호센터 개원
- 2006 효림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개원
- 2007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효림노인공동생활가정 개원
- 2008 효림가정봉사원교육센터 개원
- 주간, 단기 장기요양기관 지정
-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개원
-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 우수교육원 선정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효사 효림원

- 2009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완료
-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개원
- 사회복지사업 우수협력기관 지정 (서울서부보호관찰소)
- 2010 수효노인요양시설설치(단기보호센터에서 요양원으로 전환)
- 2012 효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평가 A등급
- 2013 구립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 위탁, 구립북가좌데이케어센터 개원
- 2014 효림·수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평가 A등급

## 단고을합창단 충북 합창대회 대상

2014 충북노인문화예술제 합창대회에서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덕중) 소속 단고을합창단(회장 손운락)이 대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가 함께 주최한 이 대회에는 10개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단고을 합창단원 31명은 그동안 같고 닳은 실력을 마음껏 뽐낸 결과 대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며 "합창단원들이 수상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단고을합창단은 주 2회씩 모여 두 세 시간씩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 합창단원들은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함께 마음을 모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단고을합창단은 2007년 결성돼 지역 어르신들이 꾸준히 참여, 올해 처음으로 대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배현진 기자

## “여러분 스스로를 대접하세요”

명상 심리학 박사 서광 스님,  
10월 23일 조계종봉사단 교육



서광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이 조계종 직할자원봉사단을 위해 '봉사를 통한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10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1년에 두 차례 있는

봉사단 보수교육의 일환이었다.

시작하기는 쉬워도 지속하기는 힘든 것이 봉사. 스님은 봉사자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지혜로운 봉사자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고 물었고 객석에서는 '감정조절' '봉사하고 있다는 상'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서광 스님은 "봉사를하겠다는 마음을 낸 자체가 위대하고 수승한 것이지만 하다보면 거기에도 인간관계는 있기 마련이라 협동보다는 독단, 봉사자간 반목과 질투도 생겨 마음상하는 일이 많을 줄로 안다"며 "나를 내려놓고자 시작한 일에서 다시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강해져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운을 폈다.

이어 "자비를 실천할 때 지혜를 빼놓지 마라"며 봉사피로현상을 줄이기 위해 '자비심 브레이크'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첫 마음을 되새기게 봉사활동을 그만두기보다 자신에게 자비심 가득한 마음을 배

풀어 휴식을 선물하라는 것이다.

"봉사에 지쳐서 판단도 마음먹고나면, 한편으로는 속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죠. 이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만뒀더라도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시작할 때 가졌던 특별한 마음을 도매금으로 처리해버리는 거랑 같으니까요. 이렇게 그만두면 무의식에서 가진 불만이 또 다른 번뇌방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서광 스님은 "나를 대접하는 것 역시 수행"이라며 "세 번 눈을 위해 봉사한다면 한번은 나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자비심을 베풀라"고 조언했다.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질높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스님은 이날 자리에 모인 봉사단원 2백여명에게 "봉사만큼 우리와 타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며 격려를 전했다.

배현진 기자



## 동네에서 재미있게 살자

10월 18일 삼전동 근린공원이 오랜만의 가을 운동회로 시끌벅적했다. 모처럼 모인 삼전동 주민 4백여명은 남녀노소 함께 어울려 공구르기, 달리기 등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영이)이 주최하는 삼전어울림축제였다. 주민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을, 이웃간 인사가 오고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복지관이 마련한 행사로 '동네에서 재미있게 살기' 사업의 일환이었다. 주민들 역시 축제에 참가한 다른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며 이웃간 정을 쌓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삼전복지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 장터, 솜세자랑, 먹거리 마당 등 다채로운 체험마당과 놀이마당이 진행됐다. 또한 희노애락을 주제로 한 지역 주민들의 가족사진 전시와 만들기 작품 전시도 이루어졌다.

배현진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7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10월 중

◆개강일시 : 2014년 10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매주 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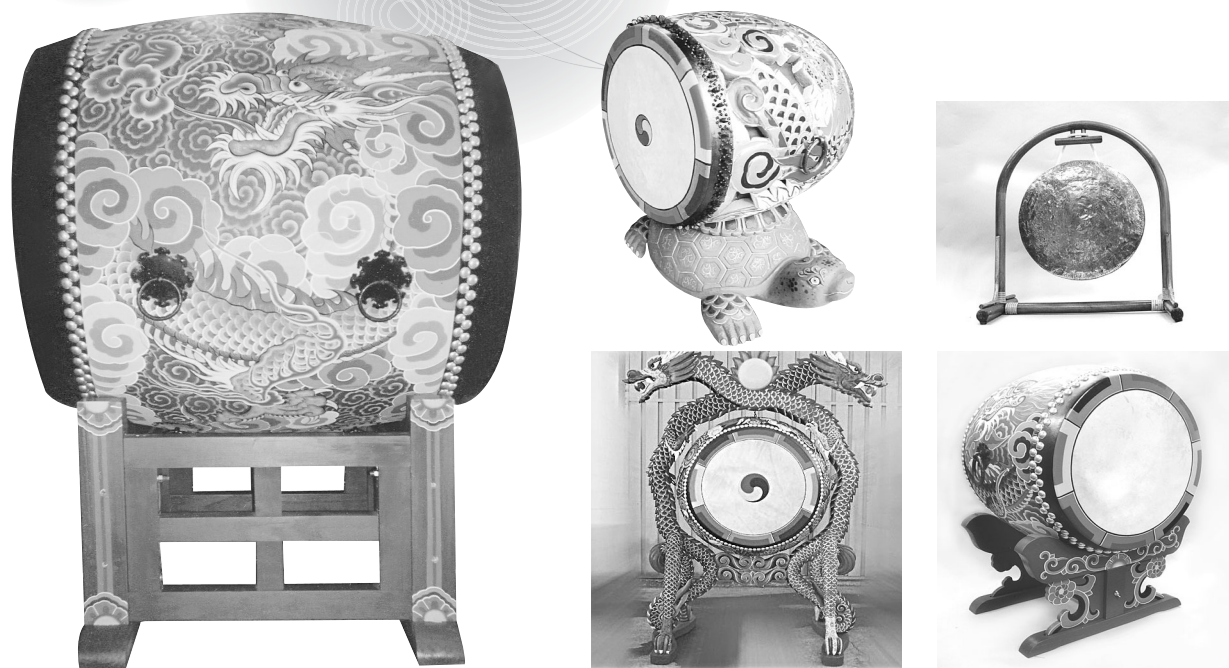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